Daily Auto Check 2021.2.15(Mon)



'20.12

'20.10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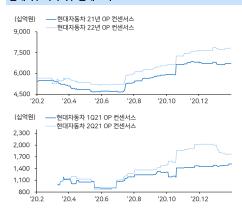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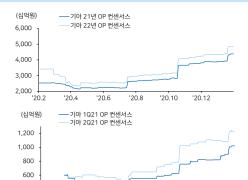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dabin.lee@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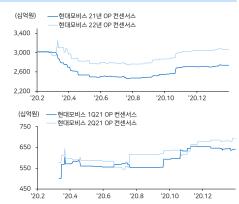
400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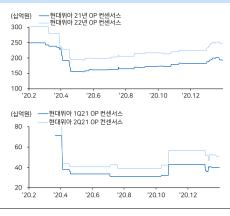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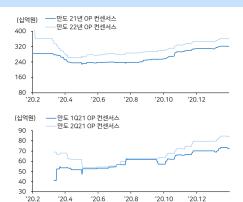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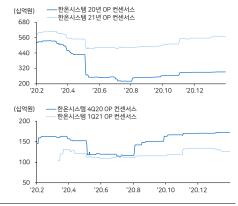
'20.8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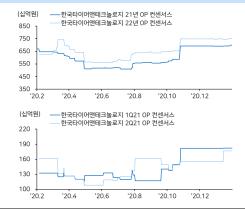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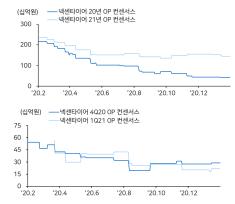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플라잉카, 로보택시... 미래 모빌리티 선점에 속도내는 車업계 (조선비즈)

플라잉카와 로보택시,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음. 자동차 업계는 물론 IT업체들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0/2021021001917.html

코나' 화재 원인 배터리 결함으로 기울어 (뉴데일리경제)

현대자동차의 코나EV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쪽으로 기울고 있음. 최근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리콜된 코나EV 배터리에서 문제

제네시스, 럭셔리 'SUV · 전기차' 영토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제네시스의 올해 연간 목표치는 작년 보다 55% 늘어난 20만 대. 제네시스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공을 들 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GV80 판매가 시작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GV70을 투입하여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테슬라 인도 진출, 남부에 첫 공장 건설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인도 남부에 첫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인도에 상륙함. 현재 대규모 전기차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인도 정부는 테슬라의 인도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전망임. https://bit.ly/3akxCnN

네 바퀴로 걷는다…현대차 '타이거' 로봇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힘난한 지형에선 네 개의 다리로 걷다가 평탄한 지형을 만나면 네 개의 바퀴로 달리는 무인 모빌리티 '타 이거(TIGER)'를 공개함. 현대차그룹은 향후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 로봇 시장에 뛰어들 계획.

현대차, 전기차 '아이오닉5' 공개 임박…내달 유럽시장 공략 (아이뉴스24)

현대차는 이달 중순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의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오는 3월 말 유럽을 시작으로 한국, 미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임. 기아의 CV는 다음달 세계 최초 공개 행사 진행 후 7월 국내에 본격 출시될 예정

LG·SK 배터리 소송 판결에 '등 터진' 美전기차 시장 (이데일리)

지난 10일 ITC(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VW는 이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판결 조정을 요청했으며, 포드 역시 양사간 자발적 합의를 촉구함.

Elon Musk is serious about making 'hover' with rocket technology (Electrek)

The CEO said that "Tesla is going to throw some rocket technology in that car. I want it to hover. We got to figure out how to make it hover without killing people." https://bit.ly/2ZiiOzy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